

# 정기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17:00-18:00
- 개최장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 소호실
- 총이사수 : 7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박영희 이사, 박성남 이사 이상 5명
- 출석감사 : 이천화 감사 이상 1명

##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5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6년도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호 의안> 이랜드재단 감사 보고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먼저 법인의 감사이신 이천화감사께서 이랜드재단의 2015년 결산에 대해 감사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천화 감사 : 2016년 1월 26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보고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의 2015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의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기관의 회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감사보고 때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과 회계프로그램 활용으로 업무 정리가 잘 되어서 전표나 기타 증빙의 양이 많이 줄어서 업무의 개선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법인카드 및 비용처리 방법을 공유폴더를 이용하여 재단 전체 직원과 공유하는 처리 방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 신뢰 및 투명한 처리 방법이라 생각되어 최근 다른 단체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재단에서 매년 모범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감사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에서 출자를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랜드클리닉은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올렸으며 이랜드재단에서 출연하였던 출연금도 약정된 금액을 정확히 상환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이랜드클리닉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결과인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신성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 2호 의안> 이랜드재단 2015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6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은 정영일 국장께서 재단의 2015년 결산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2015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랜드재단 2016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의 8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2015년도 수입액은 4,933,321,886원, 결산액은 2,275,573,952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 중 이랜드클리닉으로부터 3억원의 출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3억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입은 그룹기부금이 28억원 정도 되고, 정기이월금이 13억, 기부사이트를 통해서 이랜드 재단 쪽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1억 5백만원, 지정비지정 후원금이 약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삭줍기로 기부하는 금액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가장 대표사업인 인큐베이팅사업은 약 21억 정도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장학사업은 1억 4천만원이며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빌딩 작업을 진행 하여 내년에는 다시금 장학사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2016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지난 번 임시이사회에서 준예산으로 결의되었지만 정기이사회에서 변경된 본예산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영일 국장께서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이사회 자료집 23페이지 이랜드재단의 예산서를 보시면 2016년 본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9억원이 증가된 8,328,648천원입니다. 2016년도는 그룹기부금으로 45억, 기부사이트 후원금 2억, 지정·비지정 후원금이 약 5억원 정도, 직원들의 이삭줍기도 작년처럼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월액이 27억원 정도입니다. 세출액은 이랜드재단의 대표사업인 인큐베이팅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44억원 정도이며 장학사업은 올해 새로 리빌딩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사업준비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약 33억원 정도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인큐베이팅 위기가정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588가정을 찾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랜드인큐베이팅은 정부조직과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하여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잘 성장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이랜드인큐베이팅 하나만 가지고도 NGO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상당히 견고하게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의뢰를 하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영역과 가장 민간단체가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영역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난민, 방임아동, 다문화(이주여성), 북한이탈청소년, 노숙인 등 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활동하는 NPO와 상생하는 이랜드NPO상생파트너사업을 작년에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스투어사업은 이랜드그룹의 호텔과 리조트에 사회복지종사자 가족이나 심과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발굴해서 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올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이랜드클리닉은 매출액 42억과 영업이 9억5천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환입금 내역이 31억5천만원인데 2013년에 8천만원을 환입하였고, 14년에 6억 하였고, 작년에 3억, 올해는 3억 5천만원을 환입할 예정입니다. 진척률을 따지면 한 42%이고, 2020년 정도까지 다 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검진 현황입니다. 이랜드그룹사 직원들의 검진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일반 검진자 분들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매출액 규모로 보면 검진률은 이랜드그룹사 직원들이 약 67%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노인복지관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검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잠시 중단되어서 실적이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랜드재단의 2015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6년 예산·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이사님 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남 이사 : 기부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영일 국장 : 네. 현재 이랜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사이트는 위기가정지원사업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부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직원들이 좀 더 투명한 곳에 기부하길 원하여 운영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부자 수 약34,000명이 조금 넘었으며 누적 기부금이 4억 5천원 정도이고 본격적으로 운영 한 것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금은 100% 대상자를 위해서 쓰여 지고, 운영비로는 쓰지 않는 다. 두 번째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000원을 기부하면 매칭을 10,000원 해서 2배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저희 재단에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현재는 이랜드그룹 직원들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대외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형주 이사 : 모금이 안 되면 해당 금액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정영일 국장 : 네. 그 부분에는 기타 많은 모금 사이트와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례를 확실히 검증해서 올리기 때문에 만약 해당액만큼 모금이 안 되면 저희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모금사연 중 안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윤형주 이사 : 그럼 기부자가 직원들만 있나요?

▶ 정영일 국장 : 네 직원위주로 기부가 되고 있지만 요즘은 일반 기부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되도록 오픈 안하고 있으며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부자들도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태웅 이사 : 앞 써 말한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보다 더 먼 미래를 꿈꾸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가. 즉 리더가 가치, 비전이 있어서 끌어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리더들은 1인 5역을 해도 안 어렵지가 않고 이것이 내 일이고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지만 직원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을 완전히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쪽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재단이 사업을 영위하고 먼 미래를 꿈꾸는 단계를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희 이사 :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확장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재단의 구조라든가,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영일 국장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이랜드재단 2014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5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박영희 이사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박영희 이사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이랜드재단 2015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6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 <제 3호 의안> 2016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으로 이랜드재단 2016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이랜드재단은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으로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을 받으면 보통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이에 2016년 기부금에 대해 기본재산예외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태용 이사 : 이랜드재단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외승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영희 이사 : 이랜드재단의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2016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이태웅 이사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태웅 이사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2016년 기부금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제 4호 의안>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으로 이랜드재단의 이경준 이사장의 3명의 이사의 임기가 아래와 같이 만료됨에 따라 개인적인 사유로 연임을 포기한 홍정길 이사를 제외한 총 3명의 피선거자들은 이사회에서 결의 되면 연임할 것을 승낙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연임 승인에 동의하십니까.

-아 래-

성명	만료일	연임기간	비고
이경준	2016.04.08	2016.04.09. ~ 2020.04.08	
한정국	2016.04.08	2016.04.09. ~ 2020.04.08	
이태웅	2016.04.08	2016.04.09. ~ 2020.04.08	
홍정길	2016.04.08	-	연임포기

▶ 윤형주 이사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윤형주 이사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

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은 심의한 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의 없이 결의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참석이사들에게 알리고, 결의된 안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하는 사항은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18시 00분

2016년 2월 25일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웅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박 영 희 (인)



이 사 박 성 남 (인)



감 사 이 천 화 (인)

